

# 정사암 회의[政事巖 會議] 나랏일을 논하는 백제 최고의 귀족 회의



천정대  
/ 국가문화유산포털(문화재청) /

## 1 개요

백제의 귀족회의. 관련 내용은 『삼국유사』에 전한다. 백제에서 귀족의 대표인 재상을 선출할 때, 정사암(政事巖)이라는 바위에 후보자 3~4명의 이름을 써서 선택된 사람을 재상으로 삼았다고 한다. 이 고사는 백제가 재상 선출 등 국가의 중요한 일을 일정한 장소에서 논의하였으며, 귀족이 백제 정치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보여준다. 정사암 회의는 신라의 화백회의나 고구려의 제가회의와 비교되고는 한다.

## 2 정사암(政事巖) 고사를 통해 본 백제의 정치

『삼국유사(三國遺事)』 권2, 기이(紀異) 제2의 남부여(南扶餘)·전백제(前百濟)·북부여(北扶餘) 조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관련사료](#)

또 호암사(虎巖寺)에는 정사암(政事巖)이 있다. 국가에서 장차 재상(宰相)을 의논할 때에 마땅히 뽑을 만한 사람 서너 명의 이름을 써서 상자에 넣고 봉하여 바위 위에 두었다가 얼마 후에 열어 보아 이름 위에 도장이 찍힌 자국이 있는 사람을 재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하였다.

정사암이 있던 호암사는 지금의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호암리에 위치하였다고 전해진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권18 충청도(忠淸道) 부여현(扶餘縣)조 [관련사료](#) 와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를 검토하였을 때, 현재 부여 북쪽의 금강과 지천(之川)이 합류하는 규암면 동쪽의 천정대(天政臺 : 시도기념물 제49호)가 정사암이 아닐까 추정된다. 이곳은 당시 백제 사비도성 북쪽에 위치하는 곳이다. 즉 위의 기록에서 말하는 회의가 사비도성 근처의 정사암에서 진행되었다면 이는 백제가 신라에 대응하기 위해 이 지역을 의식하고 할 수 있다. 다만 기록만 가